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2월 18일(금)
(음력 11월 4일)

Пятница
18 декабря 2020г.
№ 49 (11691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12일. 주정부 청사앞 사할린 주요 옴카 (성탄트리) 점화식.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정부,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업결산보고

보건, 교육, 교통 분야의 제반시설에 대한 중요한 결정 및 새 주택 완공 분양, 예방접종 캠페인 시작에 대한 주 정부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보건 분야

코로나19와의 투쟁은 보건 분야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사할린은 전국에서 교사들을 코로나19로부터 백신화하는 데 돌입한 첫 지역이 되었다.

절차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앞서 사할린과 쿠릴의 의료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외에도 사할린에 코로나19감염 증증에 걸려 회복 중인 환자들의 재활이 조성된 가운데 '시네고르스키에 미네랄니 워디' 휴양소에서 감염 이후 나타나는 장애로부터 재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6호 보건소의 대규모 수리 후 소아과 병동이 개설되었다. 재건설을 통해 환자들의 흐름을 원활하게 구분하도록 한 가운데 현재 사할린의 소아 환자들은 성인 환자와 분리된 여유 있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는 김 레라(현재이스라엘에서 치료중)를 치료하기 위해 1천1백만 루블리를 추가로 배당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2021년

2월까지 레라의 전적인 치료 지원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전에 주 예산에서 레라의 치료비로 5백만 루블리가 지급되었다.

스포츠와 건강한 생활방식의 애호가들에게 좋은 소식은 파라무쉬르 지역에 처음으로 수영장인 대형 종합스포츠센터 '코사트키'가 생겼다. '코사트키'의 개장은 세웨로쿠릴스크 주민 2500명에게 참으로 기념적인 것이 되었다.

이 건물 2층에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 장비를 갖춘 체육관과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어린이 놀이터, 의료 진료실이 갖춰져 있다.

주택 건설 분야

이번 주에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돌린스크 구역의 소베트스코예 마을에 처음 비상기금으로 이주민을 위한 집들이 마련되었다.

8가구가 2세대 주택 4곳으로 이사했고 우글레고르스크와 돌린스크 구역의 아파트에 50가구가 입주했다. 러시아 연방 제한절에는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18가구에 신축 주택을 제공했고,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에게는 비상기금에서 이주 프로그램에 따라 새 주택이 공급된 가운데 총 76가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축하했다.

교통 제반시설 분야

교통 제반시설 구축은 이번 주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이 문제는 유리 트루트네브의 사할린 방문 중 극동연방주 대통령 전권대표 주제

회의에서 해결되었다. 회의에서는 코르사코브항구의 현대화 계획을 논의한 가운데 따라서 이 지역에 코르사코브 항만 재건설은 현대적 화물 운송과 여객선 터미널 복합시설을 포함한 다기능 해양의 허브로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20년 말까지 통합 극동 항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 이 새로운 기업은 지역로의 환승이 절충되는 오로라 항공사에서 사업이 시작된다.

사할린 철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사할린에 철도 4인 침상칸 10량, 2인 침상칸 4량, 장애인을 위한 침상칸 2량이 도착했다. 새로운 철도는 주민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했다. 사할린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은 유즈노사할린스크-노글리키행인데 이 노선으로 여행이 더욱 편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분야

이번 주에 사할린주에서 원격 또는 대면으로 대학생들과 학생들을 가르칠 가장 유능한 교사 선발을 위한 '사할린 테크'기획이 시작된다. 이는 청년들을 사할린에 정착시키고 지역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사할린국립대는 '교육 활동 조직의 실기' 전 러시아 모니터링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경연에서 제시된 기획의 3 부분은 연방 우수 실기 목록에 들어갔다. 이 대회에 러시아의 모든 대학들이 참가한 가운데 650개의 참가 지원서가 제출되었다.

단신

사할린 주민 3명이 지역 명예시민 칭호를 받아

사할린 주민 3명에게 명예 시민 칭호가 수여한다. 니콜라이 블로쎄, 알렉산드르 이반차, 나탈리아 코르슈노와가 명예주민 훈장을 받게 되었다. 이는 주지사 산하 위원회 회의에서 '사할린의 명예주민' 칭호 수여를 결정했다.

니콜라이 블로쎄는 손챌스키 탄전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 20년간 석탄노동조합을 이끌 어왔으며 '탄광의 영광' 3급 훈장도 받았다.

알렉산드르 이반차는 국가안보기관의 사할린의 원로들의 공공단체를 지휘했고 청년에 국운동을 지도하며 '명예 훈장', '청렴한 봉사', '소비에트 국경수비의 탁월함' 등에 대한 메달과 훈장을 수상한 바가 있다.

나탈리아 코르슈노와는 사할린 주두마의 원이며 두마의 상설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이고 사회정책위원회 위원, 러시아 여성연맹 사할린 지부장이다. 그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법적, 공공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주에서 명예주민 칭호를 받은 사람은 62명으로 이 칭호와 훈장은 매년 사할린 지역의 이익을 위해 산업, 학술 연구, 사회 문화, 정치, 공공, 자선 및 기타 분야에서 탁월하게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 3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리마렌코 주지사, 러 교통부 장관과 만나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러시아 연방 교통부 장관 비탈리 사블레브와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할린과 쿠릴의 교통 접근성의 향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첫째 극동 연방구에서 항공기 환승 이용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극동지역에서 지역 내 운송에 연방 공동자금의 최소 연간 37억 루블리가 필요하다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 정부에 지역 내 항공기 환승 이용 보조금에 대한 기획이 제출된 상태이다.

올해는 <안전한 고품질의 도로>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총30km의 도로가 현대화되었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면적만 약20만 m²이다.

2021년에 도로에 대한 국가기획 4개의 사회적 주요 대상 개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추가 연방 자금 총 10억 루블리가 필요하다고 하자 교통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주지사는 2020년에 사할린에 1억7천5백만 루블리가 추가로 배당되어 신속하게 네웰스크-토마리-샤흐초르스크 도로 구간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할린의 주요 도로 기획은 유즈노사할린스크-홉스크-오하를 연결하는 연방고속도로 건설에 있다. 이로써 항구의 하역 물품을 타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따른 주 중심의 도로망을 호전시킬 거라 전망하며 도로의 길이는 22km이고 공사비는 90억 루블리로 추정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유즈노사할린스크 미용사 김 예브게니

새해가 다가온다. 보통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을 찾아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바꾸려고 하고 변신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준비를 한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젊은 미용사다. 그렇지만 사할린주의 미용사로서 새로운 기록을 남긴 전문가다. **김 예브게니 (27)**는 올해 9월에 모스크바·모스크바주의 열리는 미용술 챔피언대회의 <신부 헤어스타일>부문에서 1등을 한 미용사다. 그는 사할린주 미용사로서 최초로 이와 같은 대회에 참가했다. 그 전에 사할린주에서는 아무도 이런 대회에 도전하지 않았었다. 모스크바대회는 러시아 미용 챔피언대회 준결승전이다. 이 대회 수상자들은 러시아 결승전에 출전할 권리가 주어진다.

김 예브게니는 사할린 출신이 아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까지 살아왔다. 부모가 사할린을 거주지로 택해 여기로 이주해 왔다. 사실 90년대 말기, 2000년대 초기 당시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좀 힘들게 살고 있었다. 그때 많은 동포들이 러시아 극동으로, 특히 연해주(우수리이스크 등)로 많이 이주해 갔고 사할린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사할린에 다행히 친척이 있어서 예브게니의 부모님이 여기로 오게 되었다.

예브게니는 왜 미용을 전문으로 결심했는지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한다.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경제전문대에서 은행 경영을 전공했다. 그걸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전공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어느 날 집에서 점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께 "나 미용교육을 받고 싶어요. 학비 좀 내주세요." 했더니 부모님은 좀 놀라워하긴 했지만 자기 인생길을 찾고 싶어 하는 아들에게 거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개월간 미용 교육과정을 마치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낸 예브게니는 집에 돌아와 이제는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새로운 소원을 표명했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 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가 고객들 앞에 나와 고기에 불태우는 쇼를 보여주어 예브게니는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6개월 후 요리사는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 아님을 깨닫고 6개월 간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반찬 업체에서 일했다.

그 후에는 미용사로 활약을 시작했다. 처음엔 블라디미로브카 동네와 가까운 공원 곁에 있는 두 작은 미용실에서 일을 했다. 블라디미로브카 동네 미용실에는 미용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가게에서 돌만이 일했다. 미용사는 예브게니를 지켜보고 실력이 있고 전망있는 미용사라는 판단이 서서 그에게 꼭 선생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분의 소개로 윤 엠마 니콜라예브나를 선생으로 모시게 되었고, <스틸>미용실 주인이며 인기있는 전문 미용사 김 인가를 알게 되었다. 인가는 실력 있는 젊은이를 바로 스카우트 했고 예브게니는 이 미용실에서 4년간 일한 후 다른 미용실로 옮겼다. 2년 후에



는 인가 원장의 부탁으로 다시 <스틸>미용실로 돌아와 미용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가 미용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적성에 맞고,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면 고객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기분이 너무 좋으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여성과 남성 관계없이 이발을 할 수 있는 미용사다. 개인적으로는 그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훨씬 더 많이 변신할 수 있고 더 감동적인 반응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최고의 1호 고객은 어머니다. 어머니가 첫 고객이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실험 고객으로 모시고 있다. 새 헤어스타일, 새 기술, 새 기구 - 모든 것을 어머니 머리로 해본다. 형과 아버지의 머리도 이발했는데 요즘 예브게니가 인기가 많아 시간 없어서 남자 가족 이발은 포기했다고 했다. 어머니도 예약 고

객들에게 시간을 양보하고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야 거의 밤에 헤어를 손질한다고 한다.

예브게니에 따르면 고객 중 거의 절반은 미용활동을 시작할 때 만난 분들이라며 그들은 예브게니를 계속 따라다니한다고 한다. 이들은 예브게니에게는 그저 고객이 아니라 그 동안의 그 관계가 소중한 이웃이 되었다.

사실 미용사는 그저 이발하고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고객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하고 대화를 잘 나누고 기분을 풀어주고 감동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만 단골이 생긴다.

그는 꼼꼼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며 새로운 기술을 계속 익히는 의욕이 대단하다. 이걸 그가 이번에 참가한 모스크바 미용술 챔피언대회가 잘 보여주었다. 알고 보니 이런 대회 준비를 참가자들은 2년, 1년 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우선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가르치는 미용사 사범을 선택해 자비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예브게니는 세 번 모스크바를 찾아 며칠간 강습을 받았다. 나머지는 자신의 노력과 기술에 달려 있었다.

챔피언대회는 주로 5월에 개최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예브게니는 많이 아쉬워 했다. 모든 노력이 불필요한 것 같았다. 사실 이 대회 준비를 누구도 모르게 했는데, 대회에서는 헤어스타일을 30분만에 완성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매일 집에서 가발을 드라이 하고, 머리카락을 말아주고, 형태를 고정시키는 기술을 익히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의 날개를 잃은 것 같았다고 한다. 가발과 헤어스타일에 필요한 모든 핀과 악세서리를 한 주머니에 넣고

발코니에 내다버렸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챔피언대회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이 소식을 대회 2주일 전에야 접했다. 예브게니는 몇 개월 동안 연습도 안 한 상태에서 대회를 포기해야 할지, 참가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대회 규칙에 따라 이미 선택한 헤어스타일을 올해 대회에만 보여줄 수 있기에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예브게니는 무작정 모스크바 대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는 약 200여 명의 미용사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주로 러시아 중심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지에서.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 예브게니가 유일한 대표였다. 이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예브게니는 무엇보다도 사할린 젊은이들에게 도전할 만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젊은이들이 두려워 하지 않고 많이 도전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한다.

사실 예브게니는 헤어스타일 일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커피숍도 운영하고 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년부터는 가족 사업도 도울 생각이다.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반찬공장의 제품을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돌린스크 등 여러 슈퍼와 가게에서 팔고 있다. 재정교육을 제대로 배운 자로서 예브게니는 이런 면에서 가족을 뒷받침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들어보니 예브게니가 받은 모든 교육과 자격증 모두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서비스 분야와 관련돼 있다.

미용사업에서 성장한 예브게니는 다른 일에서도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새해 성탄트리들의 행진' 대회에 사할린의 아동들 200여 명 참가

사할린주 사회복지부가 자선바자회를 연 가운데 성탄 트리 제작자들 - 매해 '새해 성탄트리들의 행진' 창작대회에 참가자들 - 이 자신의 장식품들을 바자회에서 선보였다.

5번째를 맞는 이번 경연에 주 사회적 아동기관의 학생들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창작 경연 부문에는 '가장 창의적인 성탄트리 장식품', '가장 마법 같은 성탄트리 장식품', '가장 독특한 성탄트리 장식품'이 제시되었다.

다가오는 해를 상징하는 소의 형상, 요정, 재미있는 눈사람, 파스타 공예품, 조개 장식품, 실이나 종이로 만든 기념품, 성탄 화환, 술방울, 반짝이며 다양한 재료로 장식된 공모양의 장식품 등이 심사위원들 앞에 펼쳐졌다.

전해진 바와 같이 연령대별로 경연의 수상자와 우승자는 모두 28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바자회 수익금은 경연 전 부문의 수상자들과 '오고복'사회재활센터의 창작 활동 장려를 위해 지급될 예정이다.

주내 아동기관 - 미성년자 사회재활센터, 고아원, '극복' 재활센터 - 모두에게 창작을 위한 선물세트가 제공된다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가 밝혔다.

200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Новогодних елок хоровод»

В минсоц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ел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аукцион. Авторы елочных укра-

шений — участники ежегод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овогодних елок хоровод» — выставили на аукцион свои изделия. В юбилейном пятом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00 воспитанников областных детских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Творческие работы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номинациях «Самая креативная елочная игрушка», «Самая волшебная елочная игрушка», «Самая необыкновенная елочная игрушка». На суд жюри представили блестящие, декорированные различ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шары, шишки,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венки, сувениры из ниток, бумаги, ракушек, макаронных изделий, забавных снеговичков, гномов, фигурки быка — главного символа предстоящего год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призерами конкурса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стали 28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ырученные в ходе аукциона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для поощрения твор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в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Огонек» (г. Макаров), воспитанники которого заняли больше всех призовых мест.

Также все областные дет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ские дома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реодоление» — получают наборы для творчества, сообщили в минсоц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에서 원격 방식으로 무용단 경연 개최

1941-1945년의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을 기리는 '사할린 모자이크' 주 무용단 경연이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예전처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내 전 지역의 아동 무용단들이 모이지 못했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은 각 경연 부문에서 2개 춤을 선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제출한 동영상을 심사했다."고 주내 학교 밖 교육활동 방법론

가이자 조직자인 나탈리아 사포노바가 밝혔다.

2020년 주 '사할린 모자이크'에는 주 10개 지역에서 15개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학생 21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지역 예선의 우승자들이다.

심사위원단은 사할린 예술전문대학의 무용 전문가인 타치야나 클리모와, 이리나 크루코위츠, 야나 김, 엘리자베타 사세무와 등 주 학교 밖 교육활동센터의 안무가 타치야나 세멘초와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연령별 - 6세-9세, 10세-13세, 14세-18세 - 3그룹으로 나뉘었고 경연은 5개 '민속 무용', '고전 민속무용', '고전 무용', '아동 무용', '현대 가무' 부문에서 펼쳐졌다.

경연의 주요 취지는 1941년-1945년 대조국전쟁의 참전자들을 삼가 기억하며 조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청소년 세대에게 교육하고, 창의적 소질을 개발하며 공연 기술과 전문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학교 밖 교육활동센터 홍보부에서 전했다.

Конкурс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о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заочном формате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мозаика", посвященный 75-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одов, прошёл в заочном формате.

— К сожалению, в этом году мы не смогли, как обычно, собр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учшие детские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 отмечает организатор, методист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Наталья Сафонова. — Поэтому жюри отсматривало присланные конкурсантами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по два танца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7면에 계속)

사할린 아리랑

이강산(본명:최경욱, 영산대학교 초빙교수)
이 글을 사할린 동포들에게 바칩니다!

1.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사할린으로 차출되었네

2차대전이 끝나고
일인들은 고국으로 데려가네
조선인들은 버려두네

코르사코프 항구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조선인들이
집 팔고 땅 팔고 꾸역꾸역 밀려드네

그러나 끝내
일본은 그들을 모른체 하였네
항구에서는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사할린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네
야생초 질갱이처럼

2.
광복이 되고도 70년이 지났건만
일본과 고국은 또 다른 이산가족을 생산하는구려
영주 귀국이란 이름으로
광복된 날짜를 기준으로 형제와 부모를 갈라 놓네
피붙이를 무우 자르듯 잘라서 갈라치네
그러한 배경에는 돈 문제라는 금불이가 있었네

돈은 돌고 도는데
피붙이를 금불이로 갈라 놓네

지금도
사할린에 남아있는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그 자손들을 포함하여
또 한 번
이산가족이 되어 버렸네

그 자손들은
지금도 피를 토한다
한국이란 땅을 외국이 아닌 고국이란 이름으로 밟고 싶다고

거기 누구 없소
이들의 애간장 끊는 피울음을 달래줄 이
아무도 없소

2018년 5월 20일경 사할린 동포 관련 논문을 발표하러 갔다가 그들의 소리를 직접 듣게 되었고 지금도 이러한 문제 관련해 애끓는 하소연들을 해오고 있다.

능력이 미약하여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많은 이들이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심정으로이 글을 올립니다

2020.12.10.
최경욱 올림

유즈노사할린스크, "강자들의 스키 경주" 개최

오는 주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강자들의 경주' 스키 경주에 따른 전통 사할린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에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오하, 아니와, 코르사코브, 스미르니흐,노글리키, 유즈노사할린스크, 흠스크 등지에서 선수 200명 이상이 '강자들의 경주'에 참가해 경쟁한다. 참가 연령은 15세 이상 성인, 경주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3km-10km코스에서 자유형으로 경주한다. 경기는 올림픽 대비 스포츠학교(웬스키 거리 5)의 스키 트랙에서 열린다.

사할린의 6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등장

사할린의 6개 지역의 주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고품질의 이동통신이 제공된 가운데 최첨단 기반시설이 우글레고르스크, 토마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등 구역들에 소재한 레소고르스크, 올산카, 자레츠노예, 체렌산카, 포크로브카, 피흐토보예 마을에 설치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 프로그램 '러시아 연방 디지털 경제'의 사할린 지역 기획 '정보의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예뻐서 불쌍하다

요즘도 소가 쟁기를 끌며 일하는 곳이 있다. 강원도 원주의 매지리 골짜기에 봄이 오면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논을 갈러 나온다. 골짜기 가득 울려 퍼지는 할아버지의 고향과 늘어지는 소 울음소리가 정겨워 봄별 아래 낮을 놓고 앉아 있게 된다.

일하는 소는 못생겼다. 배는 볼록 튀어나오고 다리는 가느다랗다. 뿔은 멋대로 비틀리고 엉덩이에는 톱팍지가 더덕 더덕 붙어 있다. 옛날에는 시골에 일소가 쉽게 눈에 띄었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아이들에게 소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 대형마트에나 가야 한국소, 호주소, 미국소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외딴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동안 못 본 소를 몽땅 만나게 된다. 하루에 한 시간씩 시골길을 산책할 때마다 여기저기 한우 축사를 지난다. 소들도 심심한지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때마다 새삼 감탄을 한다. 소들이 너무 예쁘다.

요즘 소는 두 뿔이 가지런하고 배도 날씬하다. 빛깔 고운

털은 날마다 빗질한 것처럼 부드럽다. 눈도 아기처럼 맑다. 일소처럼 십 몇 년을 살지 못하고 겨우 세 살이면 끝이니 아기가 맞긴 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팔자가 바뀌었겠지만 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 가난한 가족끼리 끈끈하게 고생 하는 것과 좋은 대접을 받으며 손님처럼 짧게 사는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산책길에 계속 생각해 보니 소만 예뻐진 건 아니다. 요즘 아이들도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머리는 작아서 같은 한국인의 유전자가 맞는지 신기할 때가 있다. 세상이 달라져 체형까지 바뀌는 거겠지만 예쁜 소와 아이들이 자꾸만 겹쳐 보인다.

제발 아이들만은 우리에게 가뉘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을 향한 일등 다름으로 영혼까지 마블링이 된 아이들 대신 들소처럼 마음껏 내달리는 아이들을 보고 싶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1등급 마크가 우스울 거다. 과연 누구를 위한 1등급일지 궁금하다.

광주에서 김남중



세계한민족여성재단, '2020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코로나19 팬데믹 속 온라인으로 개최

전 세계 한인 여성리더 240명 참가22개국에서 선정된 장학생 51명에게 희망장학금 수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법인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 이사장 최금란)은 12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부터 '코로나 2020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및 희망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계 각국에서 한민족 여성 240명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코로나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는 개회식에 앞서 운영이사들의 환영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최금란 코로나 재단 이사장의 환영사와 이정옥 여성부장관의 격려사가 있었다.

최금란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라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해준 회원들과, 헌신과 봉사로 수고해주신 코로나 재단 이사진 그리고 각 나라 지역담당관님들께 특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희망장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여성리더로서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다해 갈 것인지 오늘 해답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격려하며 "세계각지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는 한민족 여성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방역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 세계 각국 한인여성 리더들이 네트워크로 끈끈하게 연결돼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계 52개국에 1,0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코로나의 활동을 영상 상영하고, 재단 분과위원장의 분과 소식 소개 후 진선미 국회의원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제7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진선미 의원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리더십'이란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세계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여성들은 선두에 있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진 의원은 이제는 공공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가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리더들의 활동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뉴질랜드 총리, 독일 총리, 최근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의 탄생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치권에 당당히 입성한 여성리더들과 대한민국 여러 정부 부처 수장으로 여성 리더들이 입성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성리더들이 전 세계 각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은 12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부터 '코로나 2020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및 희망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 배경속 채외기자)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만들어놓은 길을 단단하게 편안한 길로 다져가며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혼자서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여성리더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며 "오늘 22개국에서 선정된 코로나2020 희망장학생 51명이 앞으로 세계 속에 빛나는 여성리더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이어서 글로벌 코로나19 리더십 사례발표로 신상희 브라질 코원 담당관과 재미동포인 박현주 미래법무법인 대표가 '역경에 도전하는 용기와 주변에 나누는 희망'에 대해 발표했다.

희망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이정순 코로나 희망장학금 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 속 한인여성 대학생들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을 주고자 각 지역담당관들의 추천을 받아 2020년 희망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히며 22개국에서 선정된 장학생 51명을 소개했다.

51명의 장학생들의 소감 발표가 영상으로 진행됐고, 세계 코원 담당관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공연으로 주최 측에서 준비한 BTS 공연이 영상 상영되기도 했다.

최금란 이사장은 "내년에는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8회 스페인 코로나 행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코로나 2020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및 희망장학증서 수여식을 폐회했다.

폐회 후 회원들은 자유토론으로 문화·예술·경제·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로 소그룹을 나눠 글로벌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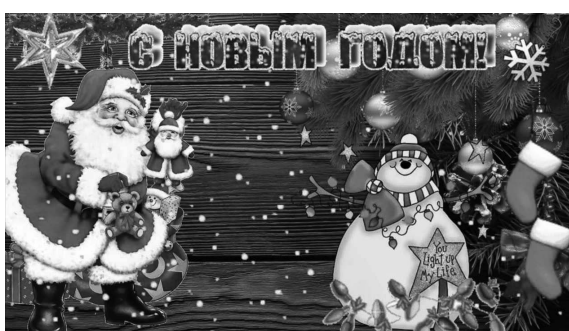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РК пройдё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марафон «Актуальная Россия»

С 17 по 19 декабря в РК пройдё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марафон «Актуальная Россия». Его основная цель -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связана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переводчик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лодёжь, планирующая обучение или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оссии, получают консультации от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а также переводчик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будут презентованы опыт го-

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коммерчески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оддержки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за рубежом, форматы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арафон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конкурс эссе «Русский язык - язык дружбы». Активные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лучают награду в виде подписки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библиотек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Главный приз - ноутбук. Регистрация для участи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марафоне «Актуальная Россия» на сайте: <http://www.actualrussia.kr/>.

KBS World



Дорогие мамы, папы,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Скоро Новый Год - праздник волшебства! Подарите Вашим детям ИМЕННОЕ интерактивное видео-поздравление от Деда Мороза! Дед Мороз поздравит каждого ребёнка по имени (от 1 до 5 имён).

Создайте Новогоднюю сказку для детей! Стоимость 500руб.

Телефон : 8- 929-9414679, 8-929-9419686 (WhatsApp)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Удалось постичь философию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В этом году отдел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ШИ "Этнос"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интервью с заведующей отдел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Заслуженным работник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лией Енчеровой Син.

- Юлия Енчеровна, во-первых,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25-летием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ШИ Этнос. Напом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 все начиналось? Ведь Вы уже тогда работали в Этносе?

- Я попала в школу «Этнос»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о. Будучи студенткой 4 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училища, ныне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иск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заработать. "Этносу" тогда требовался преподаватель баяна. Я помню своих первых шестерых учеников. Был плюс в том, что у "Этноса" тогда не было своего здания и они базирова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училища, мне не нужно было далеко ходить. Так я и пришла в школу Этнос и стала там работать.

Получив в 1995 году диплом, узнаю, что в этой школе открывается 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ициаторами открыти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были первый директор школы "Этнос" Эйдинова Наталья Семёновна и первая заведующа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им Вера Михайловна (Ким Сунеми).

- Помню, как все это на моих глазах начиналось, ничего не было. Вера Михайловна с Натальей Семеновной бежали, выискивали каягмы, костюмы. Потихоньку, по ниточке собирали. Самое важно это, конечно же,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кадры. Они смогли найт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 КНДР (семейная пара Пак Де Нам и Ри Су Бок). На Сахалине так же выискивали кадры и убеждали их переквалифицироваться на корейскую музыку, корейское искусство. Первыми педагогами были Светлана Ивановна (И Ден Дя) и Чيو Наталья Сехановна (Наталья Анатольевна). Мне предложили вести занятие по аккордеону на корейском отделении, я согласилась.

-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в "Этносе" Вы несколько раз меняли специализацию. С чем это было связано?

- Я преподавала с 1995 года, с самого открыти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кордеон.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увидела каягым, настолько он затронул мое сердце, что мне захотелось научиться играть на нем. Я подошла к Наталье Семеновне и попросила. Конечно, она была только за. И так как Наталья Анатольевна только начинала учиться у педагога из КНДР, я тоже начала вместе с ней постигать азы этого искусства. В 1997 года Наталья Семёновна отправляет меня, Наталью Анатольевну и Светлану Ивановну в КНДР. Это была наша первая стажировка, обучение за пределами Сахалина. Мы провели в Пхеньяне около двух месяцев и усиленно занимались, пальцы были стёрты в кровь. Эта поездка до сих пор осталась в моей душе, я тогда впервые соприкоснулась с корейским искусством, своими глазами увидела, как играют на каягыме, как исполняются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посмотрела, как живёт народ.

Приехав оттуда, пребывала под огромным впечатлением. Я была в школе, когда Наталья Семёновна сказала мне: «Юля, принимай своих первых учеников». Сначала я думала о том, как я могу сама преподавать, если мне ещё учиться и учиться и расти, ведь у меня нет достаточного уровня. Наталья Семёновна сказала совершенно спокойно: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будешь сама учиться и учить детей, вместе будете расти». Так оно и получилось: в течение 5 лет я преподавала каягым, пыталась сама делать аранжировки, что-то придумать. Это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 тогда не было нот, нормальных учебников, интернет был тогда не настолько развит. Было неоткуда взять материал,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пытались, мы росли, развивались, на тот момент я полностью перешла на каягым и оставила баян. Наталья Семёновна видела все наши проблемы, пыталась нам помочь, благодаря ей в 2002 году в нашу школу прибыли ещё две семейные пары из КНДР. Эт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пробыли на Сахалине 4 года, благодаря им на корейском отделении произошёл огромный скачок в развитии. За эти 4 года мы настолько изменились и выросли и в корейском танце, каягыме и в вокале.

В 2005 году на Сахалин впервые прибыли именитые исполнител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профессора Сеульской академии искусств. Они прибыли на фестиваль Гугак Арарарие (국악 아라리오) и мы с ними случайно познакомимся. Они были удивлены тем, что есть такая школа, занимающаяся корейским традиционным искусством, мы были удивлены тем,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тличалось о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Тогда мы впервые столкнулись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и в тот момент организовали пятидневную стажировку по каягыму и танцам. Тогда впервые увидел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аягым.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инструмент,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ие требования, стиль, характер. Но тогда 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чего мне не хватало. Технику я развила, но не хватало чувств, души, манеры. Я это почувствовала и увидела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где сохранен фольклор в первозданном вид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помог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у-



чение в Сеуль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скусств. С 2007-2008 годы я была в Сеуле и изучала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о приезде из Кореи, я чувствовала полное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Нам нужно было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методику преподавания, донести до детей, которые рождены не в Корею, то искусство, которое было у их предков. У меня стояла задача создать свою методику.

Когда я ещё была в Корею, Наталья Семёновна попросила меня начать изучать ещё и корейские барабаны, потому что не было замены Светлане Ивановне, которая была уже в возрасте. Мы боялись, что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может просто закрытьс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я изучала удар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Я не изучила м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но вынесла основу, принцип, заложенный в игре на ударных корей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ах. Основой является дыхание.

Мне удалось постичь философию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чем я очень горжусь. Я написала программу для каягыма, нужно был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дети были технически развиты, как в Северной Корею, и имели южнокорейскую манеру выступлений. Как показала практика, опыт оказался достаточно успешным. Дети, которых я взяла по приезде из Южной Кореи, ансамбль каягымов,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гран-при город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ауреатами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Эти девочки были участницами фестиваля Спивакова в Москве, мы ездили на фестиваль «Москва встречает друзей»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У девочек была развитая техника и в то же время у них была уникальная манера выступления. Так как я была на тот момент единствен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по корейским ударным инструментам у меня уже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набирать детей на каягым. Была создана программа для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где наряду с дыхательными упражнениями присутствует отработка ударов, постановка рук, изучение ритмов. Это комплекс, состоящий из мелких упражнений и деталей. Каждый год я набираюсь опыта и создаю что-то новое, где-то исправляю, где-то добавляю, этим достигается мастерство.

- Знаю, вы готовили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к 25-летию отделения.

- В этом году корейскому отделению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мы очень рады и горды тем, что проделали огромный путь, достигли высот. Нас оценивают наши зрите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очень высоко. У нас есть множество наград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за это время. Наши коллективы приглашают на серьёз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что является огромной честью. Все награды очень долго перечислять. В чем наш плюс? В том, что мы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м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мы постоянно пытаемся найти что-то новое, развиваться, идти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делать новые программы. Открыли отделение к-рор вокала, затем поняли, что у молодёжи есть интерес к к-рор танцу, открыли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Нам нужно было что-то новое, чтобы идти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Как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нашего 25-летия, решили сделать мероприятие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Назвали наше мероприятие «Отражение времени», оно отражает суть нашего концерта, у нас бы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номер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формате. Мы оставили фольклор, но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хотели показать, как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фольклор в нашем, 21 веке. Наше мероприятие должно было состояться 20 ноября, но его перенесли на 15 января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 Что сегодн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нашей школе обучается около 140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5 до 16-17 лет, работает 7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предметов корей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общих теоретических дисциплин, в общем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насчитывает около 14-15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 Ваши мечты и задумки...

- У меня есть мечта, но пока она неосуществима. Очень хочется, чтобы наша школа открыла филиалы, чтобы 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было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вижу к этому интерес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Например, в Невельске. Сразу вспоминаю, как мы так же начинали. Конечно, у них есть интернет, связь с Южной Кореей. Хочется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не только в пределах города, но и за пределами. Насколько это осуществится, покажет время. Ещё одна мечта - новое здание. Сейчас мы не помещаем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школы. Иногда не можем сделать какой-то номер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не позволяется помещение.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наша цель - это здание, где мы будем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где будем воплощать новые идеи.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Виктория Б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Борьба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вступила в решающую стадию

Борьба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вступила в решающую стадию, и в этот сложный пери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дальнейш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в воскресенье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трана столкнулась с «крупнейшим в истории» эпидемическим кризисом, и, если нынешнюю тенденцию не удастся изменить, придётся подумать о дальнейшем повышении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Тру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ущерб, который люди понесут в результате введения третьего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 заяв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Если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вляемся страной-образцом в борьбе с вирусом, самое время это доказать», - подчеркнул Мун Чжэ Ин. Он поручи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тщательно изучить ситуацию и «принять смелое решение», если оно будет сочтено неизбеж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могает работникам сферы социальных значимых услуг

В условиях ухудшения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публиковало пакет мер по поддержке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а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услуг, среди которы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доставка, уборка мусора и другие. 14 дека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представил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оклад. В нём изложены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и защиты категорий работающих, которые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так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как высокий риск заражения, снижение уровня доходов и другие. Работникам, занятым в сфере надом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ет выплачена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460 долларов на человека. Её получают около 90 тысяч человек. К работе на объектах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будут привлеч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адры. Уборщикам мусора и доставщикам посылок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помощь в проведении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Власти огранича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100-литровых мусорных мешков, значительно усложняющих труд работников коммунальных служб.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сширить рамки страхования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защищённости рабочих в случа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травм. Будут смягчены условия для создания профсоюзов доставщик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ообщают о планах укрепить защит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анных сфер в экстренных условиях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Вакцинация от COVID-19 в РК начнётся не ранее апреля

Вакцина против COVID-19, заказанн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К, прибудет в страну в феврале-марте будущего год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акцинация может начаться не раньше апреля. Обеспечив необходимый запас вакци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подходить к массовой вакцинации осторож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Pfizer и Moderna впервые коммерциализировали технологию матричной РНК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вакцины от COVID-19.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только 30 тыс. человек были вакцинированы в рамках третьей фазы клинических испытаний. Всё это не позволяет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вакцина безопасна. Более того, отсутствуют сведения о её воздействии на детей 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к массовой вакцинаци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нужно приступать после анализа опыта вакцинации как минимум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за рубежом, что покаж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возможные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ланирует обеспечить вакцинами против COVID-19 44 млн человек.

Банк Кореи: Удалённая работа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ереезду из городов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удалённая работа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также и по окончании COVID-19. Это позволит большому количеству людей переехать из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в пригороды, где стоимость жилья более доступн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воскресенье отчёте Банка Кореи о достоинствах и недостатках работы в удалённом режиме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COVID-19. Согласно отчёту, работа на дому положительно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омпаниями и их сотрудниками. Ряд компаний вложили много сил и средств в организацию удалённой работы, что стало причиной ожиданий её устойчивости. Авторы исследования ожидают роста спроса на коммерческие и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в пригородах и его снижения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где арендная плата намного выше. По их мнению, удалённая работа поможет повысить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в странах с передовы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жители которых тратят много времени на поездки. К таким странам относится РК. В отчёте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удалённая работа будет успешной при условии возвращения школ и детски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 норм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RKI)

Умер Ким Ки Дук

Антон Долин — об одном из самых радикальных режиссеров конца XX века, который стал для Запада олицетворением «азиатского экстрима»

В Латвии от осложнений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11 декабря умер режиссер Ким Ки Дук — один из самых прославленных и титулова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Ким Ки Дук стал воплощением радикального автор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и «азиатского экстрима», так популярного на Западе. О его творчестве рассказывает кинокритик «Медузы» Антон Долин.

Через неделю Ким Ки Дук отметил бы 60-летие. За последние четверть века знаменитый корейский кинорежиссер снял 24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а, не меньше половины из них становились событиями и получали фестивальные призы. Несмотря на плодovitость, Ким Ки Дук, переживавший взлеты и падения, не превратился в застывший памятник самому себе. Его картины продолжали восхищать одних и бесить других, вызывать упреки в неактуальност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 в чрезмерном радикализме.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тношения к кинематографу Ким Ки Дука трудно не признать: он был эмблематичной фигурой для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ы, игнорировать его значение и влияние невозможно. На излете XX века Ким Ки Дук воплотил все крайности радикального автор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снимая фильмы, перегруженные символами и метафорами, вызывающими сценами насилия и поэтическими условностями, при этом почти всегда возмутительно красивые. Отделять в них наивную аллегорию от хитрого троллинга, пафос общих мест от тонкой иронии западная публика так и не научилась — и потому,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Ким Ки Дука уважала (на родине, в Южной Корее, к нему относились с неизменным, росшим с годами, скепсисом). Именно для Европы и Штатов он стал воплощением «азиатского экстрима» и, шире, азиат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влияния. Долгие годы он считался живым воплощ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 хотя там были звезды и до него, именитые ровесники Ли Чан Дон и Хон Сан Су пользовались не меньшим уважением; со временем публика стала уставать от Ким Ки Дука, и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шли чуть более молодые Пак Чхан Ук и Пон Чжун Хо. Тем не менее, имя Ким Ки Дука стало практически нарицательным. Такой вирусной славой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пользовался разве что Квентин Тарантино.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именно Ким Ки Дук с его трансгрессивным методом оказался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жертв «культуры отмены». Истории о нем в самом деле рассказывали пугающие. Одна актриса чуть не пострадала во время съемок сцены самубийства, другие обвинили режиссера в сексуальных домогательствах — правда, ничего не было доказано, но и ответный иск Ким Ки Дука не привел ни к чему.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 Корее он стал едва ли не персоной нон грата. Было ясно: беспощадность его фильмов плохо вяжется с культом хрупкости и личных границ, новой нормой.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им Ки Дук проводил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где его неизменно читли: он часто бывал в Москве, участвуя в фестивалях в качестве конкурсанта или члена жюри, свой последний фильм «Растворяться» снял в Казахстане, а умер в Латвии.

Сред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фильмов Ким Ки Дука не



так просто выделить самые выдающиеся. В каком-то смысле, увидев любой из них,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бо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При этом квинтэссенция философии и стиля Ким Ки Дука «Пьета», увенчанная в Венеции «Золотым львом» за 2012 год, — далеко не самый выразительный и цельный его фильм. Напротив, он идеально иллюстрирует уязвимые места вселенной Ким Ки Дука: скрытую под сценами жестокости крайнюю сентиментальность (в этом он наследовал Достоевскому), провокативность на грани манипуляции, оперирование устойчивыми мифологемами, которые порой делали его сюжеты довольно предсказуемыми.

Неизменным хитом фестивалей оставался его ранний «Остров» (2000) —

жесткая элегия нечеловеческой красоты, герои которой заглатывали рыболовные крючки (на премьерном сеансе кто-то потерял сознание). На Москов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конкурсе блистал «Реальный вымысел» (тоже 2000) — откровенная картина, в которой автор разоблачал собственный метод. «Плохой парень» (2001) и «Самаритянка» (2004) с садомазохистской дотошностью исследовали темы проституции, эксплуатации женского тела и патриархального насилия. Любимым фильмом для многих стал «Весна, лето, осень, зима... и снова весна» (2003) — нелинейная буддистская притча, оформленная в духе календаря с видами корейской природы.

Вероятно, вершиной творческой карьеры Ким Ки Дука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Пустой дом» (2004), получивший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призов в той же Венеции. Это самый строгий и таинственный фильм режиссера, в котором любовь двух отверженных, как водится, сопряжена с физическим насилием и нарушением лицемерного закона — причем маргиналы, как тени, проникающие в чужие жилища, в своих отношениях обходятся вовсе без слов.

Творческий кризис вылился в самый оригинальный фильм Ким Ки Дука «Ариран» (2011), основанный на однои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песне — ее исполнение со сцены кинотеатра стало с тех пор фирменным приемом режиссера. В этой исповедальной картине он сам выступил в качестве продюсера, сценариста, режиссера, оператора, монтажера и единственного актера; она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призом «Особый взгляд» в Каннах. Получив после этого венецианское золото за «Пьету», Ким Ки Дук вновь принялся за эксперименты — от почти карикатурной физиологичности «Мебиуса» (2013), герой которого отрезал себе половой член, до неожиданной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ети» (2016), в котор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ыбак случайно попад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но патриотично требовал вернуть его на родину, к семье.

По стечению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амый победный год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 несколько «Оскаров» для «Паразитов» Пон Чжун Хо, «Серебряный медведь» для Хон Сан Су в Берлине, — завершился трагической и внезапной смертью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самого скандального из режиссеров Кореи, чьим завещанием стал снятый в Алма-Ате фильм, оставшийся без призов на фестивале в Москве.

Источник: Meduza

Южная Корея первой в мире дала бесплатный интернет во всех автобусах страны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первой в мире страной, где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на рейсовых городских автобусах стал доступен бесплатный беспроводной интернет.

Небольшая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вершения реализац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граммы прошла в одном из рейсовых автобусов в центре Сеула, на котором проехали министр науки, технологий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Чхве Ги Ён, а также депутаты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Чо Чжон Сик и Чо Сын Нэ.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мин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грамма оснащения всех городских автобусов страны бесплатным беспроводным интернетом стартовала в 2018 г. и 14 дека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на было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а. Отныне на абсолютно всех рейсовых городских автобусах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Кореи пассажиры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есплатным интернетом. Как подчеркнуто в документе, Корея стала первой на планете страной с подобной услугой на всех рейсовых автобусах.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ведомства, всего по городским маршрутам Кореи курсирует 35 006 автобусов. Оснащ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на 29 100 автобусах на себя взяло центр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а на 5906 автобусах - органы местной власти.

Подведены уже 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данные по частот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беспроводного интернета в тех автобусах, где он был доступен. В среднем, на каждом автобусе за месяц подобной услуго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1228 человек, объем обмена данными составил 55,3 гигабайта/месяц на автобус.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последующие три года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бесплатным интернетом в автобусах должен составить около 220 млрд. вон (ок. 200 млн долл.). "Мы ожидаем, ч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более чем в четыре раза превысит расходы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сети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за три года", - отметил чиновни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еще одна партия вакцины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Доставлено 300 доз препарата Sputnik-V.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по России по вакцинации жителей от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ставку препарата осуществляет российский Минздрав.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проводится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словий доставки и хранения вакцины, маршрутизации пациентов. С учетом выполнения этих требований федеральное ведомство направляет препарат по субъектам – в некоторые регионы пока не поступило ни одной доз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яли уже вторую партию.

– Мы сейчас четко выстраиваем график вакцинации. Первыми прививку получают врачи, учителя,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Важно, чтобы эти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должали трудиться, помогали людям. Дальше вакцину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Мы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обеспечить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иммунную прослойку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акцина поступила практически сразу с завода – в пятницу препарат был тольк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системе, а в воскресенье ящик с термодатчиками уже разгружали в островном аэропорту.

Вакцина распределяется по всем районам, количество определя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пидобстановки и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ереболевших. До конца месяца ожидается еще поступление препарата. Это должна быть большая партия,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расширить категории прививающихся. Планируется вакцинировать, кроме медиков, педагогов и соцработников,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чаще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родному краю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ому спросу со стороны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на машины автопроката, созданного при участии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рк предприятия вскоре увеличится почти вдвое.

Инициатором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стала компания «Эдельвейс». Поддержку начинанию оказала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для проката Autorento было закуплен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марки «KIA» и «Toyota». Сейчас парк предприятия насчитывает 55 машин.

– Наш регион интересен для туристов, прибывающих из-за рубежа ил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 А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качественного сервиса. Он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и возможность арендовать современный безопасный автомобиль, чтобы туристы мог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сетит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острова.

Как показала практика, есть существенный спрос на прокатные автомобили и со стороны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 Сегодня люди все чаще задают себе вопрос – а так ли уж необходима собственная машина,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Медведев. – И приходят к выводу, что проще арендовать автомобиль для конкретной поездки. В итоге уменьш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машин на дорогах, в атмосферу попадает меньше выхлопных газов.

Средняя загрузка парка автопроката в 2019 году составила 75 процентов.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сначала негативно сказалась на работе предприятия.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в первые весенние месяцы 2020 года упало на 40 процентов. Но уже к маю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меняться. Из-за введ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россияне стали реже отправляться за рубеж, в дальние поездки по своей стране.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льтернативой стали путешествия по родному краю.

– Наш клиент –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стровом, а также туристы, командировочные,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по работе, – сказал Олег Тряпичкин, директор автопроката по развитию. – Их интересуют живописные места, которых у нас хватает, – бухты и горы, леса и реки. При этом среди них много людей, которые хотят ощутить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 потому они далеко не всегда пользуются услугам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прокатный автомобиль – идеальное решение.

По словам Олега Тряпичкина, с июня по сентябрь 2020 года загрузка автопарка составляла 90 процентов. В выходные дни на стоянках не оставалось ни од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сширить автопарк, закупить еще 40 машин марки «KIA» - «Rio», «Seltos», «Sorento». Н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придут на остр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онлайн-форум экспертов собрал более 900 участников

Ключевой темой форума стало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трехдневной программы специалисты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им достичь новых высот в своей профессии.

Участников по видеосвязи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Форум экспертов – очень значимое образователь-

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требованиям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Высокая квалификация персонала и опережающая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являются важными факторами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й. Поэтому мы уделяем и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м нужны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и эксперт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подготовить первокласс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ередав им свой опыт и мастерство. При эт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уровень сотрудников наш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 отметил Антон Зайцев.

Программа состоит из теоретических и пр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 участники работают в направлениях «Менеджер компетенции региона», «Тренер-наставник», «Корпоративный стандарт» и «Тьютор участника WorldSkills Junior». В качестве спикеров выступают в том числе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е эксперты движения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 Задача форума – прокачать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мастеро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учить их технологиям работы по сборке коротких программ обучения 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Также мы хотим привлечь уже состоявшихся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к программам обучения,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включи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общество экспертов. Это позволит им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ресурсам и актуальным практикам подготовк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Алексей Тымчиков.

К примеру, в ходе проектно-аналитической сессии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из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опережающей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под текущие и перспектив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К этой работе подключились члены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и молод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Кроме того, в сессии участвуют молодеж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тметим, первый форум экспертов организовало обла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ри участии «Союза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собрать всех, кто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подготовке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научить их технологиям подготовки не только на баз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о и на базе предприятий. Видео-формат встречи необычен, но от этого он не должен стать менее продуктивным. Современ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оздают виртуальные мосты между людьми, что позволяет продолжить диалог по вопросам современных вызовов в области бизнеса и образования, – отмети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РЧК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ень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онлайн-сессии ООН

В столице Таиланда, Бангкоке, 9 и 10 декабря проходило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ООН для Азии и Тихого океана (ЭСКА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заседанию.

С докладом о климатических действ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ступ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12 декабря исполнилось пять лет Парижскому соглашению, целью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достижение баланса между антропогенными выбросами и поглощениям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к середине XXI век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ланирует достичь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до 2025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также проводят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внедрения низкоугле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еализаци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 На Сахалине 90 процентов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связаны с выработкой тепловой и электрической энергии. При это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собственными энергоресурсами, в которых уголь исторически играл ведущую роль. Чтобы уходить от угольной генерации, мы принял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 переводу всех котельных области с угля на газ. Это обеспечит сниж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данном секторе в два раза, – отметил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ют 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итию газомоторного и электротранспорт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убсидируется перевод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газ.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электрокаров применяется нулевая ставка транспортного налога.

Имеются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том числе по запуску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водороде, а также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 энергетик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и СПГ.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для снабжения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оценкам, почти 80 процентов антропогенных выбросов поглощаются лес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будут и далее приниматься меры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и приумножения поглотитель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лесов.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2020 году был создан климатический центр. Он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методолог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проводить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а также заниматься подготовкой кадров.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мно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пании внедряют меры по сокращ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применяются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совершенствуется добровольная климатическая отчетность.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в Бангкоке подчеркнули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климатических действий для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менно на страны АТР приходится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глобальных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О планах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ранее объявили Сингапур, Маршалловы Острова, Фиджи, Китай, Япон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ран АТР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и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стратегиях, отмечая важность адаптации к изменению климата и развития безугле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МыВместе: Более 200 держателей для масок изготовили и раздали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корсаковские волонтеры

Специальные фиксаторы делают длительное ношение масок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Их печатают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Центре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на 3D-принтере, который приобрели благодаря грантовому проекту.

Держатель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ластиковое изделие с выступами в виде «ёлочк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изменить плотность прилегания маски к лицу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кружности головы.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помогают зацеплять резинки от маски на затылке,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снижается нагрузка на уши.

– Я увидела такой фиксатор у своей пациентки.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с ним комфортнее находиться весь день в маске, и где такие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Девушка оказалась волонтером и захотела такие держатели мне и моим коллегам просто подарить. И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с ими обеспечили, – поделилась заведующая жен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ей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Индира Беков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волонтер из корсаковского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Екатерина Родионова, идею с держателями подсмотрели в Интернете. Взяли готовый эскиз и адаптировали под свой 3D-принте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бровольцы захотели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врачам, которые трудятся на передовой весь этот год.

170 изделий ранее уже передали медперсоналу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а также работникам районной санэпидстанции. Кроме того, узнав от медиков об удобстве держателей, в волонтерский штаб #МыВместе обратились и водители. По долгу службы они также вынуждены весь рабочий день носить защитные маски.

– Хочу сказат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олонтерам за подаренные фиксаторы. Находиться в маске мне стало комфортнее. Теперь я ее даже не ощущаю.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полезное устройство, – рассказал водитель скорой помощи Вячеслав Каширин.

Помимо медучреждений, добровольцы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такую же акцию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По словам волонтеров, пока ес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держателях для масок, они будут изготавливать их и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вать всем, кто работает сейчас в усиленном режим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оссийск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операто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РЭО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в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омплекс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л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ЭО Денис Буцаев 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федеральной компанией призвано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на островах, сделать ее комфортной для жизни и благоприятной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здоровь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первых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й создал геoin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где отражаются все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свалки, сроки и порядок их ликвидации. Система доступна каждому жителю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мы убрали более 2 тысяч свалок. Все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жили на чистых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в ходе встреч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дву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ы определили и согласовали перечень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ТКО,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и цифровыми платформами в области экологии, – добавил Денис Буцаев.

Также на баз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разработ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цифровые модули,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мониторинг транспорта, состояния контейнерных площадок, ве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на полигонах. Программа фиксирует все данные и формирует отчеты с составлением договоров, платежей и анализом мест накопления ТКО. Все это призвано сократить количество стихийных свало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роме того, с целью достижения показателей нац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в обла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котехнопарк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вторичных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Для единственного 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важный объект, так как существуют сложности с выделением мест под захоронение отходов. Создание экотехнопарка позволит вторичные материальные ресурсы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производстве. Это одно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которое отражено в подписанном соглашен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1년 재외동포재단 예산 651억원

2020년보다 4억4천만원 감액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건립에 12억7천만원 편성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2021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총 651억5천9백만원이다. 2020년도 예산 656억200만원과 비교하면 4억4천300만원 감액됐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로 구분된다. 2021년도 재외동포재단 총 사업비는 583억8천800만원이다. 2020년도 사업비보다 4억4천400만원 줄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감액됐음을 알 수 있다.

2021년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외동포교육 사업비는 191억6천300만원 △재외동포교류지원 사업비는 157억6천8백만원 △재외동포조사연구 사업비는 8억1천만원 △재외동포차세대 사업비는 91억7천1백만원 △한상네트워크 사업비는 34억8천3백만원 △홍보문화 사업비는 46억7천6백만원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사업비는 23억5천7백만원 △재외동포인권지원 사업비는 16억9천만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건립 사업비는 12억7천만원이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재외동포 교육'(32.8%)이다. 한글학교 육성에 약 166억원, 한글학교 교사육성에 약 18억원,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에 약 7억원이 편성됐다. 다음으로 큰 사업비 예산 항목인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27%) 속하는 동포단체활성화에 약 133억원, 동포사회 숙원사업지원에 약 10억원,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에 약 11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항목에 포함된 재외동포 장학사업에 약 43억원,

구분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인건비	4,570	4,616
경상운영비	2,200	2,155
사업비	58,832	58,388
1. 재외동포 교육사업	20,126	19,163
2.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5,968	15,768
3.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760	810
4.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9,541	9,171
5. 한상네트워크사업	3,983	3,483
6. 홍보문화사업	4,646	4,676
7.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2,118	2,357
8. 재외동포 인권지원	1,690	1,690
9.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0	1,270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에 약 42억원이, 한상네트워크사업 항목에 포함된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에 21억원이, 세계한상대회에 11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도와 비교하면 재외동포교육 사업비는 약 9억원이, 재외동포교류지원 은 약 2억원이, 재외동포차세대는 약 3억원이, 한상네트워크는 약 5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2억7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서울 마곡지구에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차세대동포 정체성 교육과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센터에 해외이주 역사전시관과 내국인 청소년 체험학습장을 갖춘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2016년 551억

원→2017년 616억원→2018년 613억원→2019년 655억원→2020년 656억원 등에서 볼 수 있듯 2017-2018년을 제외하곤 매년 상승하는 추세였다.

내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 집행과 관련해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단이 각종 국내 초청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동포재단의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상황의 호전 등 전개 양상을 추정하기 곤란해 각 초청사업의 수행 가능성과 사업비 불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연수와 비대면 온라인연수를 병행·시행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시기에 맞춰 대처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월드코리아)**

[우리말로 깨닫다]

사랑을 말하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노래 가사 속에도 무수히 들어 있고, 정의도 많은 이들에 의해 내려졌으나 사랑은 빈 마음의 공간처럼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달리 뜻이 새겨집니다. 사랑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사랑을 나누기도 하나 사랑은 근본적으로 그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움이 먼저고, 몸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음 사랑만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민요에도 사랑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창부(倡夫) 타령에 보면 '사랑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게 무엇이지냐, 보일 듯이 아니 보이고, 잡힐 듯하다 놓쳤으니. 나 혼자서 고민하는 게 그것이 사랑의 근본이냐.'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안타깝고, 그리운 것이고, 혼자서 앓는 마음입니다. 안 만나고 있을 때는 보고 싶고, 만나고 있을 때는 헤어질까 두려워하는 웬지 바보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아프지만 아름답고, 슬프지만 기쁘기도 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은 좀 복잡합니다. 우리말의 어원을 설명할 때 한자가 끼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랑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어원을 한자어 사랑(思量)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은 옛말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한자어 사랑의 뜻이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여서 서로 통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말을 잇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발음이나 모양이 '사람'과 닮아있음은 금방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사람임을 떠올리면 사랑의 어원을 사람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다, 삶, 사람, 사랑'을 같은 어원으로 보고 설명하려는 학자도 많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사랑이 필요하니 이러한 설명을 하려는 것이죠. 정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저는 사랑의 어원을 이야기할 때 한 쪽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없다는 말도 맞겠습니다. 다만 사랑이라는 말이 원래 '생각하다'라는 의미였음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이 점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하는 것의 의미도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위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생각은 안 해요?'라는 말에서는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말, 배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누구 생각을 하고 산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기도이기도 합니다. 두 손을 모으면 그대로 눈앞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세상입니다. 살기가 힘들수록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내 생각으로 웃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부터 웃어야겠네요. 내가 슬픈데 그가 기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밝아야 할 이유가 사랑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그리움이고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이라는 노랫말이 창부타령에 나옵니다. 사랑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바랍니다.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리고, 가만히 안아주고, 사랑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2020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мозаике" участвовали 210 школьников, представлявших 15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з 10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ов конкурса, прошедших с марта по ноябрь. В жюри вошл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 хореографии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Татьяна Климова, Ирина Крукович, Яна Ким, Елизавета Самусева, а также хореограф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Татьяна Семенцова.

Участники распределялись по трём возрас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от 6 до 9, от 10 до 13 и от 14 до 18 лет.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ся по номинациям "народный танец", "народный стилизованный танец", "классический танец", "детский танец" и "эстрадный и современный танец".

Главные задачи конкурса — воспитание у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интереса к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уважения к памяти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одов, развитие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повыш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и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ЦВВР.

쿠나쉬르의 기념 및 비경의 장소에 큐알코드(QR code) 표지판 등장

청년 아이디어센터가 유즈노쿠릴스크에서 대통령 장려금의 지원으로 '즈북(소리)'기획에 따른 작업을 완수해 지역 중심의 비경이 펼쳐지는 장소들에 안내 표지판이 생겼다.

〈남 쿠릴열도 여행 및 관광〉통신 채널에는 "대통령 장려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 장려금으로 독특함과 현실성을 주장하는 수천 개의 기획들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우리 팀이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문가 연합위원회가 우리의 기획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음을 말한다. 계몽적이고 실리적인 기능을 성취해야 하는 이 기획의 성과들이 지금 여기에 필요하다. 이는 오랫동안 절실히 필요했고 전망적인 미래에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장기적 효과

를 지니고, 현대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획은 극히 드물다."라고 전했다.

쿠릴열도, '모나흐'시스택(해식기둥), 헬기장과 전망대가 있는 골로브닌단, 다른 흥미로운 장소들을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QR코드와 오디오 가이드가 지원되는 표지판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훌륭한 팀이 쿠나쉬르의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멋진 새해 선물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고 쿠릴 통신 채널이 전했다.

На Кунашире появились таблички с QR-кодами на памятных и просто красивых местах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дей завершил работу над проектом «ЗВУ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появились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аблички на тех местах, с которых открываются красивые виды.

«Президентский грант получить очень и очень сложно, через Фонд проходят тысячи проектов, претендующих на уникальность и актуальность. И то, что именно наши ребята получили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своей идее на таком уровне, говорит о высокой оценке этого проекта объединенным экспертным советом. Результаты этого проекта, выполняющего как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так и утилитарную функцию, нужны здесь и сейчас. Они остро необходимы уже давно и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Это тот редчайший случай, когда проект имеет пролонгированный эффект 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овременным запросам», — написали в Telegram-канале «Туризм и экскурсии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табличками с QR-кодами и поддержкой аудиогuida поместили знак первооткрывателям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екур «Монах», бухту Головинина, смотровую и вертолетную площадки и другие интересные места.

«Спасибо всей классной команде, которая, преодолев все трудности, сделала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Кунашира этот прекрасный новогодний подарок», —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12 декабря 2020 г.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на 78-ом году жизни скончался перв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им Ми Ун (Роберт Николаевич).

Роберт Николаевич был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нес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Память о нем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Разделяем боль и горечь невосполнимой утраты и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е,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кой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Общество "Разделенные семьи"**

2020년 12월 12일 사할린조선인협회(현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초대회장으로 활약하신 김미운(김민웅)씨가 중환으로 별세하였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 사할린주노인회 ·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12 декабря 2020 г. на 78-ом году ушел из жизни Ким Ми Ун (Роберт Николаевич).

Мы помним его как достойного земляка, всегда отстаивающего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ного сделавшего для этого. Он был одним из зачина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инициатором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объединений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бласти, лидером,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ивал создание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рейцев, активизацию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дание на принтере самоделных словарей и учебников.

На учредите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24 марта 1990 г. Роберт Николаевич Ким был избран пер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При нем состоялись первые культурные контакты с РК, началось налаживание связе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К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последствии АСК преобразована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Провожая в последний путь нашего дорогого друга и товарища, будем помнить его как деятельного организатора. Его усилиями в 1990 году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очень значимое на тот момент мероприятие - организация прием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ассажиров, погибших в сбитом над проливом Лаперуза Боингом 747 авиакомпании Кореан Эйр 1 сентября 1983 года, ставших жертвами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между США и СССР. Это был первый год, когда

были открыты границы, и семьи погибших впервые смогл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невинных жертв на месте трагедии – в акватории пролива Лаперуза. Роберт Николаевич много хлопотал, что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и согласовать выезд целого судна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море, где они смогли, наконец, через многие годы после трагедии, оставить памятные венки в том месте, где оборвалась жизнь их родных.

В 1991 году он инициировал поездку делег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Всемирный спортив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На тот момент это была одна из редчайш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осуществить мечту кажд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ступить на землю предков. Это пришлось на смутное время распада СССР, с большим трудом удалось получить выездные и въездные визы.

Хотим отметить замечательное качество Роберта Николаевича – умение доверять, не тянуть одеяло на себя. Вот таким человеком был Роберт Николаевич (Ким Ми Ун): и сам умел доверять, и люди ему доверяли.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о Роберте Николаевиче Ким Ми Ун, общественном деятеле, скромном,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м, прекрасном человеке будет жить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активист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ее соболезнование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Роберта Николаевича (Ким Ми Ун).

Пак Ден Чер · Пак Хе Рён · Мун Ден Хё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ен Ки Рак · Лим Ден Хван (Сахалин)

2020년 12월 17일 홈스크 노인회 문광성 회장이 향년 75세를 일기로 뜻밖의 별세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 사할린주노인회 ·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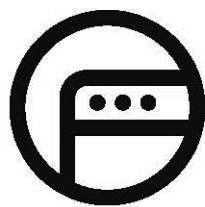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